페리 필립스 박사, 미가,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 8회, 미가 7

© 2024 Perry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에서 페리 필립스 박사입니다. 8회, 미가 7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가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마침내 마지막 장인 7장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리뷰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리뷰와 함께 이전 프리젠테이션에서 수행된 내용을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 특정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 네 구절은 그 땅의 비참한 상황과 경건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장에서 본 이전의 죄를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부정직, 특히 신뢰의 부족, 가족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붕괴에 대해 말합니다. 7절, 우리는 그 자체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8-10절, 이스라엘은 결국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5장에서 우리가 가졌던 주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시온이 재건되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알려진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4절은 그 자체로 회복의 기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와 실제로 평행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죄를 용서하시고 일레인이 말한 헤세드라는 이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쎄, 우리의 박람회로 넘어 갑시다. 그러나 먼저 면책 조항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긴 장이므로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1-4절, 그 땅의 비참한 상황, 경건의 결핍, 이전 죄의 재확인. 1절, 나는 버전을 전환했고 이 특별한 시간에는 번역을 위해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Elaine이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것은 단지 유감스러운 것 이상입니다. 화가 나다.

그것은 나에게 화가 있다는 뜻이다. 나에게 화가 있다. 나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다.

아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나는 포도를 딴 후에 여름 실과를 거둘 때에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이른 무화과도 없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가 말하는가, 아니면 시온이 말하는가? 그것은 시온의 화신인가, 아니면 미가 자신이 말하는 것인가? 미가라면 그는 백성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 사람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만, 미가도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그분의 친밀함과 우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포도와 무화과 수확은 늦여름과 초가을에 이루어지며 수장절과 초막절에 기념됩니다. 이는 올해 말입니다.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9월이나 10월경입니다. 그러나 미가가 말하는 것은 추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이삭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며 이에 대해서도 논의됩니다.

그리고 이삭줍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리는 레위기 19장과 룻기 2장에서 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확 후에

남은 것을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포도가 수확될 것이다.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무화과 추수와 곡식 추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연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곡물의 경우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밭 구석구석까지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 구석구석까지 수확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는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남겨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룻에게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포도와 무화과 수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즉 시온은 이사야 5장에 묘사된 그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주님은 울타리가 있고, 망대가 있고, 가장 좋은 포도가 열리는 포도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를 찾으러 오셨지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신 포도이다. 그가 발견한 것은 포도원이 주님이 원하는 것, 농부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농부가 와서 포도원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하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빼앗겨 결국에는 태워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덩굴이 격자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햇빛을 조금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 시대에는 그런 포도 재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특정 시간에 그들은 땅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땅을 따라 내려온 다양한 덩굴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땅에 쌓이는 이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슬은 농작물에 중요해집니다. 여기 암벽 근처에서 자라는 포도나무 중 하나를 클로즈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기온이 차가워지면 암벽에 이슬이 맺혀 식물에게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확에서 남은 것을 주워 모으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이 무화과나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올 것입니다. 오를 수 있는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벽을 따라 작은 덤불처럼 자라며 이슬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는 수확되는 나무들이니라. 이것이 무화과, 즉 건조되지 않은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함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따서 그때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린 무화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약간 시큼한 맛이 나지만 매우 달콤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수확 후에 남은 재료들입니다. 나는 또한 이 특별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올리브 수확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이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를 수확하는 방법은 긴 막대기를 가져다가 가지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올리브를 수확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줍도록 남겨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포도를 줍는 일, 무화과를 줍는 일, 올리브를 줍는 일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야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미가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 원은 나무 안에 숨어 있는 누군가, 즉 나무 이삭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아래에는 두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나무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흔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가가 말하는 것은 추수는 끝났으나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땅에 올리브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좋아요, 수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음, 저는 NASV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혈 사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그물로 서로를 사냥합니다.

자, 여기에 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정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추수한 후에 무화과가 한 그루도 남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이삭을 따고 나면 포도가 한 송이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일부 번역자들은 그들이 땅에서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땅을 뜻하는 단어와 땅을 뜻하는 단어가 같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지구라고 번역한 일부를 제공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동일합니다. 경건한 사람 히브리어로 하시드(hasid)는 언약사랑(covenant love)과 같은 어근으로 헤세드(hesed)를 뜻하는데, 이는 6장 8절에서 사용된 자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 경건한 사람인 하시드 (hasid)는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스라엘의 현대적 맥락에서 당신은 hasid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시드(hasid) , 히브리어로는 복수형 하시딤(hasidim) 입니다 . 따라서 그 용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헤세드, 즉 이 언약의 사랑,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갖고 계신 이 끝없는 언약의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들 중 단 한 명도, 단 한 명의 하시드도 이 땅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적인 사람은 누구나 멸망당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혈 사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자, 집주인,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들 모두는 유혈 사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 3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사람들을 그물로 잡습니다.

그들은 그물에 있는 해시드를 잡습니다. 넷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뇌물과 거짓 예언과 우상 숭배의 그물입니다. 다시, 우리는 아래 3절에서 정치, 종교, 성직자 제도와 선지자직이 어떻게 모두 하나로 묶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가두기 위한 그물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전망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망입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태피스트리가 있는 것처럼, 이 용어를 그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악에 관해 함께 짜여진 이 악의 태피스트리입니다. 양손이 잘 되네요.

그들은 한 손을 등뒤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손이 잘 되네요. 왕자도 재판관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대인은 자기 영혼의 소원을 말하므로 이를 엮는다.

이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그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앞서 2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3절에서 그물, 융단은 왕자, 지도자, 재판관, 대인 사이의 부패를 나타냅니다.

위대한 사람이란 엘리트, 어쩌면 지주,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모두 함께 일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있습니다. 일레인이 언급했듯이 그 특별한 악은 6장에서 언급됩니다. 여기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쁜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바라는 것입니다. 엮어 짜는 것은 물론 망과 부패와 잘 어울리며 앞서 언급한 태피스트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기관은 현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듯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며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서 용어는 마치 기뻐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함께 손뼉을 치지만, 또한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손을 절뚝거리거나 다른 손을 누군가의 등 뒤로 눕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모자들 사이의 악수와 거의 같습니다.

두 손이 함께 작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하고, 함께 악을 계속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Leslie Allen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르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방백들, 무엇이든지 간에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시스템을 쟁탈합니다. 이것이 현대적이지 않다면, 나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4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남았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것은 가시울타리 같으니라. 이것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네가 파수꾼을 세우는 날, 네 형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보자.

mesuka) 와 혼란 (mevuka) 사이의 단어 유희입니다 . 즉, 물건을 안에 가두고 예를 들어 동물을 안에 가두고 포식자들을 쫓아내도록 되어 있는 가시울타리가 어떻게든 혼란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스 카가 메부 카로 변하는군요 .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것입니다. 그들의 곧은 것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곧은 것은 가시덤불보다 더 나쁩니다 . 즉, 가시덤불은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가 돋고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될 메스카 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 이 경우에도 국민을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는 경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혼란을 초래합니다. 메스 카는 경계의 혼란 때문에 메부 카로 이어진다 .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악 중 하나는 경계석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언급하지만, 토지 재벌들은 실제로 자신의 경계가 어디인지, 상대방의 경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의 확장은 경계에 어긋나게 작용하며, 가시 울타리가 경계라고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경계는 어디인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럼, 울타리가 어떻게 경계로 활용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경계는 동물을 가두는 데 사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일종의 거친 나무 울타리이지만 그 위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덤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칸토 가시관, 그림이나 그림에서 보는 가시관이 아니라 그림이 아닌 예수님 의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관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작은 덤불이지만 가시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맨발로 이것들 중 하나를 밟았다면, 아니면 우연히 이들 중 하나에 기대었다면,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시를 클로즈업한 것입니다. 사실, 아마도 예수의 머리에 있던 가시관은 우리가 보는 이 엮은 아칸토 가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로마 군인이 이런 덤불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의 칼을 들고, 아래로 뻗어, 베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뿌리를 따서 올리브의 이쑤시개처럼 찔러서 뒤집어서 뿌리를 잡고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이 겪으신 가시관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혼란이라는 단어는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이사야 22장 5절에는 혼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심판의 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혼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공황을 의미하며 정복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은 가시가 공황과 굴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적들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혼란이 파수꾼을 배치하는 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판인 칠십인역을 따라 번역하면, 만일 네가 다른 일을 하거나 지정된 형벌이 임박하면 네 파수꾼에게 화가 있을 것이며, 네가 네 파수꾼을 세우는 날에는 네 형벌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파수꾼과 형벌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형벌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어떻게든 처벌을 시작합니까?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계해도 국가에 닥칠 재앙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억하세요, 5장으로 돌아가면 다가오는 전쟁을 예상하여 군대를 소집하라고 되어 있고, 파수꾼은 앗시리아인들이 오고 있거나, 나중에는 바빌로니아인들이 오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탈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수꾼이 백성들에게 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시편 127편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 방어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리고 미가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파수꾼들이 여기서 당신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도시를 지키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사회적 어려움 중 일부로 돌아가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남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네 품에 누운 그녀에게서 네 입술을 지키라.

이웃, 친구, 아내. 매우 흥미로운.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이 장의 3절에 설명된 부패가 이 특정 구절에서 발견하는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불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주목하세요. 사회는 나쁘다. 이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 하지만 친구들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친구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 적어도 나에겐 아내가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아니, 더 이상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친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도 믿지 마십시오. 형제마다 반드시 속이고 친구마다 비방을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입술을 지켜라. 말 그대로 네 입의 문을 지키라는 말이다.

입술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입술은 입의 문이다. 6절에 보면, 사회가 가족을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들이대는 상황으로 변화시킨 결과로 지금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가족의 붕괴는 무엇입니까? - 시어머니를 상대로 법적으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다. 익숙한 것 같나요?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신약성서에서 발견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서도 나옵니다.

우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은 범죄였습니다. 토라를 되돌아보면 이것은 구약의 경제에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내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가 자기 집, 자기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전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발견한 사랑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헤세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7절, 그 자체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사회적 배경, 사회적 붕괴, 가족 붕괴 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떡해? 그러나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나의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나는 주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심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의인에게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아직 그 땅에 있다면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여기서 파수꾼에 사용된 동일한 어근은 4절에 사용된 파수꾼에 대한 동일한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파수꾼이 있어도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4절에서 파수꾼은 재앙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기서는 미가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말하고 있다면 선지자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거기서 그는 바벨론의 진격을 보고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고 있는데, 그거 알아요? 나는 기다릴 것이고, 당신의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음, 그 특별한 경우에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악이 오고 있지만 여기에 그것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음, 하박국은 실제로 미가가 여기서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하더니 하박국서 3장에 이런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성경 부분을 하나로 묶으려면 여기 7절과 하박국서 3장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파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시딤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에서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7절의 경첩이 무엇인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나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이 기도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8절부터 10절까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 나의 원수여,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둠 속에 거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빛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8절과 10절을 포함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은 여기의 구절들이 같은 주제로 묶였다고 말하는 멋진 단어입니다. 8절, 9절, 10절이 있고 8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중앙에서 좀 더 논의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 좋은 친구의 조언에 따르면, 여기저기서 라틴어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nclusio 에 있습니다 . 미가는 자신이 심판의 결과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3장에서 구역질이 나네요. 빛이라는 단어에 대한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9절에 이르면 보게 되겠지만, 8절의 이 부분은 9절과 연결됩니다. 두 구절 모두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미가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시느니라. 그리고 여기 8절의 세 번째 부분인 8절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분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절에 도달하기 전에 8절과 9절 사이에 이 구절들을 함께 연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가볍습니다.

어둠과 빛은 감옥을 연상시킨다. 이스라엘은 전쟁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탈출할 것입니다. 빛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가서 2장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데려오고, 2장의 지도자가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빛을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8절에서 빛이 사용된 것을 보았고, 어둠과 빛을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던전에서 햇빛 속으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시 미가 2장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백성, 즉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감옥에서 깨뜨려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37편, 이사야 42장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것은 세상의 빛을 보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에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즉, 세상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진리에 대한 개념을 선택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4절에 나오는 웨슬리의 찬송 And Can It Be, that I should Gain은 아마도 미가서 7장 8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투옥된 영혼은 오랫동안 죄와 자연의 밤에 묶여 누워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빠른 광선을 발산시켰고, 나는 빛으로 불타는 지하 감옥을 깨웠습니다. 내 사슬이 풀리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서 나는 일어나 나가서 당신을 따랐습니다. 나는 이것이 미가서의 이 장, 이 구절이 웨슬리의 찬송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에 의해 감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생각을 이해할 것입니다. 감옥, 어둠, 빛.

믿음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입증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배 기간과 유배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르기까지 그의 진노를 당하리라.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 시온을 대표하는 미가일 것입니다. 그가 변호하시기 전까지는 내 사건을 변호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미가서 초기에 한때 검사였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변호인이자 Zion의 소송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를 빛 가운데로 데려가실 것이고,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병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빛 속으로 나오면 빛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던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예정입니까? 우리는 그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그 죄가 심판을 가져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변호인이 되셔서 밝혀주신 검사 주님, 제가 변론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8절, 여기 9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 클루시오 의 끝 괄호인 10절로 넘어갑니다 . 그러면 내 적이 보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빛을 본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내 적이 보게 될 텐데, 적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나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한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토론할 것입니다. 내 눈은 그녀를 바라볼 것이며, 이제 다시 시온을 언급할 것입니다. 원수가 시온을 바라보며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제 내 눈은 이런 말을 하는 그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는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누구입니까? 이로써 적과 관련된 인 클루시오가 종료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에는 원수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적의 파괴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그러면 적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 문화에서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실제로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수치심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치심을 낳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수치심이 죽음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부끄러움과 3장 7절의 거짓 선지자들의 부끄러움을 주목하십시오. 즉, 거짓 선지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아, 그런데 시편 기자, 즉 다윗이 여러 번 자신의 적들을 멸망시키라고 요구하지 않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형벌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수치심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글쎄, 보자. 조롱하는 것은 적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느냐? 그건 그렇고,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의 야훼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대문자로 여호와.

당신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 조롱은 개인적으로 그에게 반대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다른 곳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산헤립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히스기야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그에게 의존하는 나라를 조롱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79편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편 115편의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서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건을 다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약점은 야훼, 즉 그들의 하나님의 약점으로 간주됩니다. 거리의 수렁.

그러나 조롱하는 사람들은 거리의 수렁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리의 진흙과 같을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 10장에서도 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거리의 수렁에 대한 생각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미가서 4장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너희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로 더럽히게 하라 그 눈이 시온을 바라보아 기뻐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 시온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시온에 일어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온은 기뻐하며 그들의 멸망을 지켜볼 차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계속됩니다. 운명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이제 시온이 파괴되는 대신에 우리가 보는 것은 시온이 재건되고 포로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가나안으로.

그 날은 너희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날 당신의 경계는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일이야? 다시 한 번, 큰 희망을 가져보세요. 스피커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곳은 더 이상 시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시온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언젠가, 혹은 그 날, 미래의 언젠가일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건물은 미래의 불특정 시간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450년경 유배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언적으로는 귀환 후 느헤미야 치하의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돌아올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는 기원전 450년경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 읽었습니다. 건물은 시온 성벽에서 바깥 경계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계까지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략 기원전 168년에서 약 63년 정도에 마카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독립된 이스라엘 국가를 가졌고, 그 경계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꽤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을 약간 열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 아마도 우리도 요한계시록 3장과 21장을

고대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새 예루살렘이 매우 확장된 경계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이 40장부터 48장까지 언급한 확장된 경계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매우 잘 연결됩니다. 그 날은 그들이 문자 그대로 앗수르와 이집트의 여러 도시에서, 이집트에서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너희에게 올 날이 될 것이다.

이곳은 포로들이 확장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추방자들과 저는 여기에 괄호 안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히브리어이지만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올 것이고 말 그대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수형도 쓰이지만, 집합적으로 쓰이는 단수형이에요. 야곱이 백성을 가리키는데 집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는 야곱을 가리킨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경계에서 오실 것이며, 북방의 대적 앗수르와 남방의 대적 애굽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올 것임을 의미하는 환유일 것입니다. 즉, 그들은 모든 곳에서 올 것입니다.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제이콥. 추방자들은 다시 집단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민족 인 고임(goyim) .

그럴 수 있을까? 모든 민족이 종말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로된 두 나라인 이집트와 시리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열방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고이임이 있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빛나는 바다로. 우리는 여기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사해 또는 염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경계는 기본적으로 리프트 밸리에서 지중해까지, 산에서 산까지, 북쪽과 남쪽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르 산은 가나안의 북쪽 경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돔 근처 가나안 남쪽 경계에는 아론이 죽은 호르 산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후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다에서 바다로, 산에서 산으로 메리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포로 생활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의 메리즘(merism)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메리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성경의 첫 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것은 메리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강.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제 우리는 리프트 밸리(Rift Valley)를 조금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소위 엘아리쉬 와디(El-arish wadi)라고 불리는 이집트 강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도를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곳이 가나안 본토이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더 어두운 지역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포함하여 북동쪽으로 상당한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쪽의 지중해부터 남동쪽의 사해 또는 염해까지의 바다입니다. 북쪽에는 호르 산이 있고 남쪽에는 호르 산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땅이 회복될 것을 본다.

이제 여기서 부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의 크기를 현대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기 현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플래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에는 북동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Bilat 만까지 이어지는 남쪽 지역도 포함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현재의 경계에 추가될 내용이 있나요? 나는 그것을 시청자에게 연습으로 남겨두겠습니다. 13절,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도 땅, 땅을 뜻하나요? 그것은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까,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까? 그리고 내 겸손한 의견으로는 땅은 땅 또는 땅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집합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땅은 예언된 대로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대제국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돌아왔고, 여러분은 다시 독립 국가를 갖게 되었고, 그 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립 국가가 된 유일한 때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땅은 황량하고 사막이었고, 그냥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성서에서는 지구 전체가 어떻게든 황폐해질 것이라는 의미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땅입니다. 그 지역은 황폐해질 것이다.

즉,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건조한 기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미가는 3장의 끝 부분에서 모든 나라를 언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회의적입니다. 14절, 다시 기도합니다.

또 다른 힌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림과 기름진 들판 가운데 홀로 사는 주의 소유의 양떼를 주의 홀로 다스리소서. 옛날과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게 하라.

이것이 기도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닐 것이며, 그때에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식량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돌아오겠죠.

음, 여기 스피커에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회중을 대신하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의 황폐함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생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확실히 오늘날의 경우입니다. 사막은 말 그대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바산과 길르앗 또는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 경제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요단강 횡단 지역으로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들은 비가 많이 내리고 거기에서 계속될 수 있는 많은 농업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에는 길르앗 땅이 있고, 바산 땅이 있습니다. 일부는 시리아에 있고 일부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이 있고, 우리가 바산이라고 부르는 곳을 중심으로 요르단이 만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꽤 유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유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 숲 속이나 숲 속에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조라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자인 미가 5장을 다시 참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시온은 숲속이나 삼림 속에 홀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시온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된 또 다른 이미지는 숲 속의 사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5장을 다시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은 땅으로

옮겨질 야생 동물들로 둘러싸인 장소에 있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나은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앞서 사막에서 당신은 무엇을 가졌는지 언급했습니까? 자칼, 사자, 여우, 뱀 등 그곳에 정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삼림지대에서 초원으로의 변화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즉, 삼림지대란 나무를 베는 곳이지만 농사를 많이 할 수는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것은 초원, 즉 히브리어로 갈멜산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곳은 포도원이나 즐거운 땅인 갈멜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거기 무엇이든지 다시 정복될 야생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갖게 될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한 땅 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의 구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신은 찬송가를 아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주 예수여. 더 이상 제 노래로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찬송가 2절의 특정 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초원은 아름답고, 숲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봄의 꽃옷을 입고 미가가 말한 내용이 반전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한 찬송가는 익명의 십자군 찬송가에서 유래했을 수 있습니다. 자, 책의 마지막 부분인 15절부터 17절과 반대로 책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당황하게 될 때에도 그의 백성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 읽은 수치심 요인은 적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네게 기적을 보이리라. 와, 일레인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사람의 전환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가가 말하고 있든 주님이 말씀하시든 그것은 동일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laine이 6장에서 기억에 관해 언급한 내용과 그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6장에서 그녀의 자료를 언급하는데, 특히 출애굽을 기억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역사의 주요 사건이고, 세대에서 세대로 기억되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이고 장엄하며 전능하신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당신을 도우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죄악이 이 정도니, 그가 당신에게 행한 일을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열방이 보고 자기들의 모든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지만, 수치 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들은 입에 손을 대고 귀는 막힐 것이다.

다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민족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럴까요? 거기 누구 있어요? 그들은 입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그들의 귀는 귀머거리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나라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나는 이미 10절을 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인해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또 거기 누구야? 글쎄요, 흥미롭게도 그 이전에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주님도 아닙니다. 선행은 민족이다. 그러면 나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제안을 해보자.

그렇다면 열방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보고 자기들의 보잘 것 없는 능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원자폭탄, 순항 미사일, 이지스 함선, 구축함, 항공모함을 갖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거룩한 암소여,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이 언급되어 있다면 현대 역사에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힘에 경악한 때가 있었습니까?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5장에서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1967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특정 시기에 어떻게 자신의 힘을 보여줬는지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종말론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습으로 남겨 둡니다. 어쨌든 그들은 입에 손을 얹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32절에서 개인의 입에 손을 대는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하거나 악한 음모를 하여 어리석었다면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십시오. 이것은 뉴리빙번역(New Living Translation)입니다.

그것은 개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미가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것이 나라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해의 부족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단지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할 줄 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과 42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눈멀고 귀먹은 자들이라고 비난하시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열방은 여전히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행동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몇 구절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보고 싶어요. 17절, 뱀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같이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그들은 떨면서 그 요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을 얻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숨어 있던 성채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날이 이르면 호세아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땅에 무너져라 우리를 삼키라 하리니 우리가 이같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차라리 몸을 완전히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들은 흙을 핥는 뱀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라는 초기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던 나라들에게 완전한 굴욕과 치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대적들은 주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바위 밑, 아마도 동굴과 피난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0장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가? 산들이 사람들 위에 무너진다는 개념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땅이 사람을 삼켜 달라는 간청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미가서가 매우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현장에 등장하지 않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중간적인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많은 것, 특히 통치자의 도래와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미가에게도 종말론적 요소를 본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피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두 장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언약의 사랑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세드. 주와 같이 죄악을 사하시며 자기 기업에 남은 자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이뇨 ? 그는 헤세드, 즉 사랑의 친절을 기뻐하기 때문에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이는 헤세드가 번역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미가야, 누가 하나님과 같느냐? 여기서 미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위 구절의 맥락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공통된 주제이며 실제로 출애굽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은 힘이다.

예를 들어 위의 출애굽기 구절의 맥락에서, 시편 등의 모든 구절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즉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헤세드와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며, 그 문맥에서도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헤세드 역시 변함없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토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세드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서와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5장으로 돌아가서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시는 통치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하다, 들어 올리다, 견디다, 짊어지다, 지지하다, 지탱하다, 견디다, 받아들이다, 견디다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헤세드로 인해 마땅한 모든 형벌을 없애는 것, 죄과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이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없애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앞서 논의한 하나님의 진노, 곧 높이 들린 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이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을 용서하고 범법을 간과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공통된 주제입니다. 용서하시고 지나치시는 하나님은 범법이시니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원수들처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당신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악한 행위, 죄, 불법을 발 아래 밟으십시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행하실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하심과 같이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라 그 일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바다에 던지시니 거기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듯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죄를 숙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찬송가, 나의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는 강력한 혀 앞에 , 그 구절 중 하나는 그분이 취소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찬송가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깨뜨리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논하는 내용인데, 원문에는 취소된 죄의 능력을 깨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낚시 금지 표시입니다. 죄가 취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는 야곱에게 진리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푸시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야곱과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황금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나이다.

머올암 으로 갑니다 . 당신은 야곱에게 진실을 전하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견고함, 신실함, 확실함, 신뢰성, 안정성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점에서, 거짓 신들과 달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진리는 남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는 옛날부터 있었으므로 우리는 미가 5장에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가 5장은 고대 통치자들의 활동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해 몇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도 심판과 정의를 내리시지만, 그런 다음에는 그들의 끔찍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고난과 박탈감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Hasid가 되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헤세드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언급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통치자를 통해 죄를 심판하시고 땅에 영원한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유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치자의 오심은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는 5장과 7장에서 아주 많은 말로 논의되고 있으며, 2장에서도 이것은 요한복음 10장과 또한 어린 양에 관해 읽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 7장에 예언된 통치자의 정복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모든 일을 꺾으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멸망된 적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패한 적이다.

그는 패배한 적이다. 아 예, 그는 벌지 전투처럼 계속되는 후위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히틀러가 전쟁에서 거의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요했지만 결국 나치는 패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결국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는 패배한 적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고대하는 지상의 궁극적인 평화, 특히 미가 2장, 미가 4장, 이사야 2장에서 볼 수 있는 궁극적인 평화는 4장에서 논의되며, 그 성취는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미가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가 지상에서 논의하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Micah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Elaine과 저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에서 페리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8회기, 미가서 7장입니다.